

최연의 산 이야기 <11> 가야산 3



가야사를 폐하고 금탑 자리에 이장한 남연군 묘, 멀리 가야산의 주능선이 명당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절을 폐하고 쓴 명당이 나라 망하게 하였구나

가야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연군의 묘이다. 남연군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이며 고종의 할아버지이다. 남연군의 묘는 가야산 산줄기가 동쪽으로 향하여 예산평야를 부러 놓게 되는데 그 동쪽 자락에 있다.

안동 김씨가 조선의 국권을 쥐고 흔들 때 왕족 중에 출중한 인물이 보이던 그대로 두지 않고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던 살벌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흥선군은 살아남기 위해 파락호 행세를 하며 전국을 유람하고 다니며 후일을 기약했다.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왕기가 서린 명당으로 이장하고자 당대의 유명한 풍수가와도 어울렸다. 그때 당대의 유명한 풍수가 정만인을 만났다.

남연군 묘의 이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황현의 <매천야록>과 예산의 향토사학자 박흥식의 <예산의 얼>에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흥선군이 정만인에게 당대에 발복할 제왕지지(帝王之地)를 물으니, 가야산 동쪽자락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오는 자리(二代天子之地)가 있고, 광천 오서산에는 만대에 영화를 누리는 자리(萬代榮華之地)가 있다고 하자 바로 가야산을 택했다고 한다.

남연군 묘의 형국은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춘 복호형(伏虎形)이면서 상제봉조형(上帝奉朝形)에 해당한다. 가야산 서편에 있는 석문봉이 주산이 되고 왼쪽으로 옥양봉, 만경봉이 덕산을 거쳐 청룡세를 이룬다. 오른쪽으로 는 가사봉, 가업봉, 원효봉으로 이어져 금정산 월봉에 둥쳐 백호세를 이루며 감싼 자리에 남연군 묘가 위치한다.

그런데 천하 명당에도 흠결이 있었다. 상제형의 명당에 청룡과 백호가 매우 높고 웅장하여 위에서 묘를 위압하는 형국이다.

정룡, 백호가 활장(活場; 묘자리)을 누르면 아들이 아버지, 손님이 주인을, 신하가 임금을 압박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고종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순종 대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복호형의 명당에는 호랑이 발에 해당하는 산봉우리가 발가락에 해당하는 바위를 드러낸 채 서 있다. 호랑이가 발가락을 치켜든 형상인데, 호랑이는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 발가락을 치켜 올린다. 그래서인지 고종이 즉위한 이후 천주교도와 엄정하게 많은 동학교도가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닌 자기나라 군대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락호 대원군의 욕망은 왕권을 잡는 것이었기에 결정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강행하기로 하고 가야산을 찾았다. 그런데 그 명당자리에 가야사라는 절이 들어서 있고 절터에는 금탑이 우뚝 서 있었다.

흥선군은 그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차례로 일을 벌여나갔다. 먼저 경기도 연천에 있던 남연군 묘를 금탑 뒤의 산기슭에 임시로 옮겨 놓았다. 연천에서 가야산까지 오백여리 길의 이장(移葬)은 종실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라 상여가 지나가는 지방의 백성들을 동원하였다. 상여는 맨 마지막으로 운구를 한 '남은들' 사람들에게 기증되어 가야산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고개자락에 상여도기를 짓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다.

명당 근처에 임시로 가묘를 마련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가야사 절을 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는 흥선군이 재산을 처분한 2만 냥의 반을 가야사 주지에게 주고 승려들을 쫓아내게 하고 불을 질렀다는 설과, 둘째는 충청감사에게 중국의 명물 단계벼루를 주고 가야사 승려들을 쫓아내게 하고 불을 질렀다는 설이다. 절에 불을 지르고 승려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충청감사와 가야사 주지 모두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야사를 폐한 후 금탑을 깨부수고 그 자리에 남연군 묘를 썼는데, 도굴을 우려하여 석수들을 동원하여 바위를 십 척 이상 파고 관을 안치한 후 석회를 삼베 끈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요즘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후일 독일인 상인 오펜트트가 도굴을 하려했으나 돌병충처럼 둘러쳐진 강회를 뚫어내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다. 통상 요구를 두 번이나 거절당한 오펜트트는 미국인 자본가 켄킨스의 도움으로 프랑스 선교사 페롱을 앞세워 상하이에서 '차이나호'를 타고 아산만으로 들어와 삼포전을 따라 덕산 구만포에 내렸다. 천주교도 김여강(金汝江) 등 8명의 안내를 받아 남연군 묘에 이르러 도굴을 시도했던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고개 숙인 꽃

어디에 있었을까? 막 피어나다 눈을 맞은 뒤 우뚝 멈춘 채 있는 금낭화 꽃망울 사이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 며칠 전 꽃망울 위로 내리던 눈송이를 꼭 닮았다. 설마, 눈이 풀리고 몸을 다시 움츠리지 않겠지...

어제 오늘, 봄날의 햇살은 말 그대로 환해서 드러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확' 눈에 띈다. 나뭇등결이나 뿌리나 바위 속의 비밀도 보이는 것 같다. 일시에 만물의 몸 속 깊이가 간직했던 사연들이 적나라하게 풀어헤쳐져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잎이나 하얗고 노랗고 붉은 꽃이 어떻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발길이 뜸했던 숲속 길로 걸음을 옮겼다. 겨울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걷던 길이었으나 요즘은 한 달 넘게 가지 않았다. 4월 초에 심던 감자를 말걸에 심었으니 뭔가 바쁘긴 바빠는데 무엇 때문에 바빠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5월로 접어들었지만 숲은 봄이기는 겨울에 가까운 모습이다. 쌓인 낙엽들을 밟으며 거는 길은 언제 걸어도 낮은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에 젖게 한다. 낙엽들은 내 발에 밟힐 때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 한다. 푸르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 가지에 돌아날 또 다른 잎을 위한 전양의 소리도 아니다. 낙엽도 지금의 자신에게 다가온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도 거이어 무너졌구나!' 계곡에 다다라 건너편 숲가에 자리한 폐가를 바라보니 한쪽이 주저앉았다. 사람이 떠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틀림은 번듯하게 유지하고 있던 집이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천장과 벽도 무너졌으니 집의 운명이 다할 날도 멀지는 않았다.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취도 그때쯤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집 옆의 무덤도 푸른 일렁임이 가득했던 예년에 비하니 한가해 보인다. 취나물을 뜯던 가장자리도 아직은 푸르름이 깔리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반가운 꽃들이 눈에 띈다.

무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인 할머니의 모습으로 피어난 꽃. 은근한 붉은 빛으로 본다면 수줍은 처녀인 것도 같지만, 가만히 볼수록 할머니를 닮은 꽃이다. 허연 머리칼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에서 떠올려진 인상이라고 얘기하곤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걸음을 멈추었다. 뭔가 섬뜩한 모습이 할머니꽃에 어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땅을 향해 입을 벌린 꽃은 웃는 모습이기보다는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등줄기가 서늘하다. 햇살은 환하고 따뜻하네 이 서늘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불현듯 집과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둘러보았다. 건너는 계곡 가에 버티고선 소나무가 내 시선을 잡는다. 여인이 목을 매 죽었다는 나무. 붉은 빛을 은은히 뿜어내면서 당당한 자태로 하늘을 떠받치며 자라고 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집을 향해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죽어 있었다는 여인. 할머니꽃은 보고 또 보아도 죽은 여인의 모습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 진정 살고 싶어 죽은 사람.

'죽을 목에 걸 때, 그녀는 편안했을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무덤가의 할머니꽃은 더 늘었다. 봉분 위까지 자리를 잡고 피었다. 할머니꽃이 되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다.

집의 남겨진 부분마저 무너지고, 집터와 딸린 밭이 숲이 된다면, 이 무덤 주위도 나무로 뒤덮여 숲이 된다면, 할머니꽃은 사라질까? 무덤도 숲이 된다면, 돌아오며 생각하니 산의 무덤들엔 할머니꽃이 많다. 고개 숙인 꽃. 왜 하늘을 보지 않고 물어볼 수 없는 꽃. 산에 살다 산이 된 여인들. 그런데 나는 왜 당신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멈추게 되는가?

■유승도 (시인)

Advertisement for SHC candle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ink lotus candle, a collection of various colored candles,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their benefi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HC candles.

Advertisement for Giban shoe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lack shoe, a diagram of the shoe's structure,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features and benefi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Giban shoes.